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| 배포 일시 | 2022. 7. 28.(목) | |
| 담당 부서 |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| 책임자 | 팀 장 | 지영철 (044-202-88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서상훈 (044-202-8891) |
|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| 책임자 | 부 장 | 김종길 (052-703-0646) |
| | | 담당자 | 과 장 | 최보화 (052-703-0648) |

건설현장,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
- 7월, 건설현장 열사병(의심) 사망사고 5건 발생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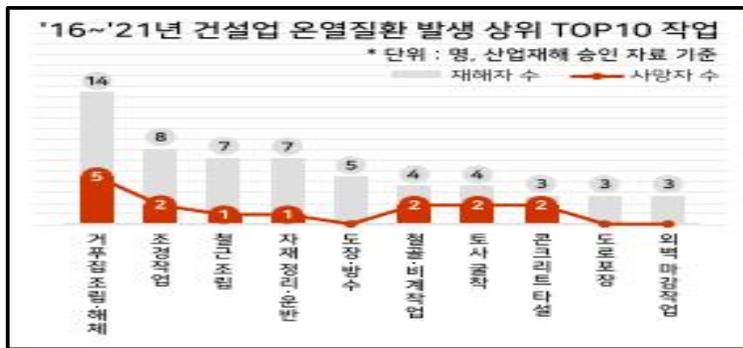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“열사병 위험경보”를 발령했다.

* 폭염 위기 경보 ‘경계’ 발령 시점: (‘21년) 7.20. 10시 → (‘22년) 7.2. 12시

□ 최근(‘16~’21년) 여름철(6~8월)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(87건)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

○ 거푸집 조립·해체, 조경, 자재정리·운반,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*에서 주로 발생(58명, 66.7%)한 것으로 나타났다

* ①거푸집 조립·해체 ②조경 ③자재정리·운반 ④철근조립 ⑤도장·방수 ⑥철골·비계 ⑦토사·굴착 ⑧도로·포장 ⑨외벽마감 ⑩콘크리트 타설



* (기초자료) '22.1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현황

○ 이 중 사망자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▲거푸집 조립·해체, ▲철골·비계, ▲토사 굴착, ▲콘크리트 타설 ▲조경 등 5개 작업이다.

○ 한편, 올해 7월초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(총 5건)하였고 이중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에서 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<'22년 건설업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사례 >

- (7.2.) 16:35경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조립·해체작업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
- (7.4.) 12:20경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쓰러져 응급조치하였으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
- (7.5.) 11:40경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오전 조경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12:40분경 땀을 많이 흘린 상태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
- (7.20.) 16:30경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휴식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
- (7.6.) 16:00경 충남 당진시 건설현장에서 우수드레인 설치작업 후 비틀거림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7.21 사망

□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8월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·점검·감독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
○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신고제를 운영(☎1588-3088)하여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,

○ 장·차관 뿐만 아니라 폭염 특보 발령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폭염 취약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확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.

□ 사업장은 정부가 주요 사업장에 배포한 「열사병 예방 가이드」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에 열사병 위험 10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

○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하되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고

작업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

- 아울러, 작업 후에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분한 피로회복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등 귀가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온열질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.

□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

- “현재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▲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, ▲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, ▲3대 기본수칙(물·그늘·휴식) 준수 등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 고 하면서,
- “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”고 당부했다.



붙임

폭염에 의한 온열질환(의심) 발생 경보

산업안전보건공단
KOSHA
JULY 2022

폭염에 의한 온열질환(의심) 발생 경보

- (사례1) '22.7.2. 경기 시흥 소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자(1명) 사망
- (사례2) '22.7.4. 대전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(1명) 사망
- (사례3) '22.7.5. 인천 강화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조경작업자(1명) 사망
- (사례4) '22.7.20. 대전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(1명) 사망

온열질환 산업재해는 7~8월에 집중 발생하며, 특히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옥외 작업자에게 발생위험이 높습니다.

최근('16~'21년) 온열질환 산업재해 182명(사망 29명) 중 건설업에서 87명이 발생하였고, 사망자는 69%(20명)에 달합니다.

[건설업 폭염 취약 작업]

거푸집 조립·해체, 조경작업, 철골·비계 작업, 토사굴착, 콘크리트 타설 등
<사망자 2건 이상 발생>

* '16~'21년 건설업 온열질환 발생 상위 TOP10 작업
* 단위 : 명, 산업재해 승인 자료 기준
— 재해자 수 — 사망자 수

| 작업종류 | 재해자 수 | 사망자 수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거푸집 조립·해체 | 16 | 5 |
| 안양기동 | 8 | 2 |
| 반조립 | 7 | 1 |
| 차체정리 | 7 | 1 |
| 도장 | 5 | 2 |
| 타설·비계 | 4 | 2 |
| 토사굴착 | 4 | 2 |
| 콘크리트 타설 | 3 | 2 |
| 도로포장 | 3 | 2 |
| 외벽 마감작업 | 3 | 3 |

[작업 시 확인사항]

| 작업전 | 작업중 | 작업후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작업일정 변경 여부 검토 2) 온열질환 민감군 파악 후 작업강도 등 고려한 업무 배치 3) "열사병 예방 3대 수칙" 주지 | 1)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 2)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3)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착용 4) 체온계가 있는 경우 체온측정 5) 무더위시간(14~17시)대 옥외작업 자제 6) 온열질환예방 수칙 준수 철저 | 1)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 확인 2) 영양섭취 및 피로회복 |

[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]

- 시원하고 깨끗한 물
- 근로자가 쉬 수 있는 그늘(휴식공간)
-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휴식

[온열질환 응급상황 대처요령]

- (초기증상) 고열(38℃ 이상), 빠른 호흡(맥박), 두통 및 불편감, 경련, 반응 느낌, 쓰러짐 등
- (대처요령)
 - ▶ (의식 있을 시) 즉시 작업중지 후 응급조치 및 증상개선이 없을 시 119 구조 요청
 - ▶ (의식 없을 시) 119 구조요청

온열질환 예방 **물 마시기!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기!**

※ 주된 동료에게 이상 증상 발생 시 119 신고, 관리자 보고